



7일 밤(현지시각) 영국 런던 엑셀 아레나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전에 출전한 김현우가 경기 후 승리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슬링 '노 골드' 한 풀다

“오른눈 아예 안보여 정신력으로 싸웠다”

레슬링 금 김현우

2012 런던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현우(24·삼성생명)는 “힘든 훈련을 버텨낸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7일(현지시각) 영국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타마스 로린츠(헝가리)를 2-0으로 꺾고 우승한 김현우는 그동안 훈련이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고생이 많았던 만큼 보람이 있었다”면서 “잘 지도해 주신 감독·코치님과 함께 고생한 선·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훈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 주위 응원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승리를 확정지은 뒤 매트 중앙에 태극기를 펼쳐놓고 큰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자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는 이날 오른쪽 눈이 붓퐁 부은 상태에서 결승전을 치렀다.

김현우는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부딪히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면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거슬러서 지장이 있긴 했지만 정신력으로 했다”고 다시 삼곳 웃었다.

이날 우승으로 김현우는 2004년 정지현에 이어 8년 만에 한국 레슬링에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이 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 3위(2011년)였던 것을 생각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김현우는 “나도 ‘괴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감독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두려워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올림픽 시대에 오르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세리머니도 떠올려 보곤 했는데 실제로 올라 보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현우는 “레슬링은 내 삶의 전부”라며 “이것으로 인생이 바뀌리라고 생각했다”며 다시 함박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지독한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몰랐던 한국 레슬링이 2012 런던올림픽에서 8년 만에 금빛 미소를 지었다. 김현우(24·삼성생명)가 7일(현지시각) 영국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우승하며 한국 레슬링 대표팀의 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정지현 이후 8

년 만의 금메달이다. 그동안 하계올림픽에서 한국 레슬링이 거둔 혁혁한 전공에 비교해 최근 부진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레슬링은 한국 스포츠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전통의 효자 종목이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양정모가 자유형 62kg급 금메달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매년 금메달을 수확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사상 최다인 9개

의 메달을 쓸어들였고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000년 시드니 대회까지 꼬박꼬박 4개의 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2004년 메달 수가 2개로 줄었고 2008년 베이징에서는 동메달 1개를 목에 거는 데 그쳤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32년 만의 ‘노골드’였다. 이는 한국 레슬링 침체의 신호탄이었다. 한국은 금메달 4개를 목표로 내걸었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고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서도 동메달 1개에 그쳤다. 그동안 한계를 넘는 훈련으로 선수들을 탐금질해 경쟁력을 얻었지만, 외국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훈련량이 자리를 잡으면서 체력의 우위가 사라진 것이 컸다. 여기에 국제레슬링연맹(FILA)이 공격적인 레슬링을 유도하는 쪽으로 조금씩 규정을 손질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이번 대회에서도 오랜만의 금메달을 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레코로만형 55kg급의 최규진이 무릎 인대 부상을 이기고 준결승까지 올랐으나 체력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시상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60kg급에 나선 정지현까지 관중 논란 속에 탈락하면서 ‘금빛 기대’를 품었던 그레코로만형 삼총사 중에는 김현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침체된 상황에서 ‘실전형 강심장’ 김현우가 마침내 시상대 꼭대기에 오르면서 레슬링인들도 조마조마하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김현우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은 선수란 점은 한국 레슬링의 미래에도 희소식이다.

/연합뉴스

‘헤라클레스 김현우’ 부상 투혼 ... 8년만에 금메달

받고 ... 막고 ... 때리고 ... 혼자서 28득점

‘슈퍼우먼’ 김연경 이탈리아 초토화

한국, 3-1 역전승

한국 여자배구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 김연경의 스파이크가 세계랭킹 4위의 강호 이탈리아를 초토화시켰다. 김연경은 7일(현지시각) 영국 얼스코트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여자 배구 8강전에서 블로킹 4개를 포함해 혼자 28득점을 올려 한국의 3-1 역전승을 이끌었다. ‘김연경이 받고, 김연경이 막고, 김연경이 때렸다’고 해도 좋을 만큼 김연경은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팀 공격의 40.7%를 책임지면서 스파이크로 23득점을 올렸고 센터 정대영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4개의 블로킹으로 높이에

도 힘을 보탤다. 세계랭킹이 한국보다 11계단이나 높은 이탈리아의 탄탄한 수비진도 김연경의 강타 앞에서는 흥해가 갈라지듯 빈틈을 크게 노출했다. 김연경은 수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했다. 18번의 리시브 중 14번을 정확히 세터에게 연결했고 18차례 디그를 시도해 12번이나 정확히 받아내는 등 ‘만능 레프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를 중계한 영국 방송 BBC의 해설진도 “힘이 좋고 위치 선정이 완벽하다”고 평가하면서 ‘슈퍼 우먼’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김연경은 올해 유럽배구연맹(CEV) 챔피언스리그에서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선수상(MVP)과 최다득점상을 독식,

유럽 무대까지 정복했다. 국제배구연맹(FIVB)에서도 이번 대회에서 김연경에게 ‘배구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배구 흥보 전면에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랭킹 15위인 한국팀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조별리그에서 즐비한 강호들과 함께 편성된 탓에 ‘메달 전망’은 어둡다는 평이 많았다. 게다가 올림픽에 오기 직전 원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빛어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터라 김연경 자신도 온전히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못하면 안된다”며 오히려 마음을 다잡은 김연경은 조별리그부터 지치지 않는 스파이크를 날리며 한국을 ‘죽음의 조’에서 탈출시키더니 이탈리아까지 물리치고 준결승에까지 올려 놓았다.

/연합뉴스



“이겼다” 한국 여자 배구 김연경과 선수들이 7일 오후 (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얼스코트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배구 8강전 이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3 : 1 승리로 끝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생순’ 여자 핸드볼 4강 진출 ... “금메달 보인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런던올림픽 4강에 진출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내 코퍼 북스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8강전에서 24-23으로 이겨 준결승에 올랐다. 경기 시작 후 7분이 다되도록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2로 끌려갈 때만 해도 지난해 맞대결의 재판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강 감독이 준비한 회심의 변형 수비가 제대로 먹히면서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뺏았다.

유은희, 우선희, 정지혜의 연속 득점으로 전반 14분에는 한국이 6-2까지 한국이 앞서 나갔다. 전반을 14-11로 앞선 한국은 후반 초반 러시아의 반격에 밀려 8분 만에 15-15, 동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은희와 우선희가 다시 연속 골을 터뜨려 한숨을 돌렸고 18-17로 앞선 상황에서는 권한나가 혼자 연속 3골을 퍼부어 21-18까지 점수 차를 벌렸다. 러시아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이리나 블리즈노바, 루드밀라 포츠노바가 연속 3골

로 맞받으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기어이 22-22 동점을 만든 것이다. 위기를 맞은 한국은 권한나의 득점으로 한숨을 돌렸고 이어 유은희가 다시 한 골을 터뜨려 24-22를 만들어 승기를 잡았다. 러시아는 종료 50여 초를 남기고 득점에 성공한 뒤 10여 초를 남긴 상황에서 다시 공격권을 잡았으나 경기종료와 함께 던진 빅토리아 질린스카이트의 슈트가 한국 수비벽에 막혀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